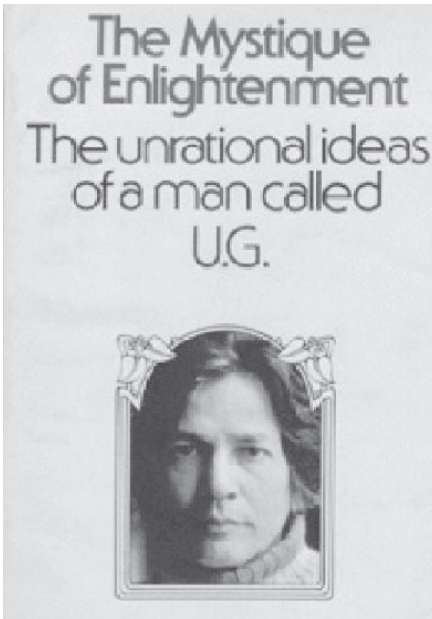


깨달음의 신비(10부)

U.G.라는 사람의 비이성적인 생각

| 우팔루리 고팔라 크리슈나무르티 | 노호상 옮김 |

문제는 질문을 통해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없어질 때 질문자가 사라지고, 이때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됨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제 4 부

미혹과 이해 사이

(1972년에서 1980년까지 스위스와 인도에서 나는 대화 중에서 발췌)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없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세상과 공유할 수가 없다. 내가 강연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강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 도처에서 강의를 했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내 쪽에서 토론을 시작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사람들이 먼저 내 곁에 와서 앉는다.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다보면 문득 누군가가 내게 질문을 던지고, 나는 그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한다. 똑같은 질문을 다른 말로 재구성해서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되물어주기만 할 뿐이다. 장난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나는 질병에서 신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 의견이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든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다.

내가 말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당신은 모든 말, 모든 문장을 점검하고 그것이 당신이 작용하고 있는 방식과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 한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입장에 있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사실이 그러하다. 받아들이거나 버리거나 둘 중의 하나다. 받아 적어봤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내 입장이 참으로 난처하다.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다. 내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UG : 간단하게 말하자. 너무 복잡한 구조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내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바보 멍청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개념적인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 당신은 그것을 지극히 단순한 말로 표현하는데 그 질문이란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답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하는 일이란, 그 질문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질문을 이리저리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Q : 질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답이 표면으로 나오는 건가요?

UG : 그것이 전부다. 그래서 당신의 질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다른 새로운 질문을 당신에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당신이 한 질문은 제대로 이해해야 그것을 내 식으로 풀어서 당신에게 재질문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가 그 질문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직접 “그것은 무의미한 질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알다시피 이 대화는, 우리 두 사람이 ‘아무런 대화가 가능하지 않고 어떤 대화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점에 왔을 때에만 도움이 된다. 내가 말하는 ‘이해’, ‘앎’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해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상태다. “이제 나는 이해합니다!”라고 말할 자가

없는 것이다. 우리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내 말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아무 데에도 이르지 못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다. 당신이 가지고 온 모든 질문은 당신 자신의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당신의 질문이어야 한다. 자, ‘당신 자신의 질문’이라고 할 질문이 있는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 말이다.

Q : 사람들이 하는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자신의 질문이라고 느낍니다.

UG :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질문이 아니다.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전혀 당신의 질문이 아니란 것을.

질문하는 자가 끝나야 한다. 답을 만드는 것은 질문자다. 그리고 질문하는 자는 그 답으로부터 존재로 들어온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질문자도 없다. 나는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답을 알고 있으며 나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것이다. 아니면 당신의 문제에 어떤 빛이 비치기를 바란다든지 궁금하다든지... 어떤 이유로든 당신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다. 당신은 학자나 석학, 배운 사람들에게 가야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질문에 많은 빛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종류의 대화에서 관심 두는 것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려고 하라.

나는 지금 아무런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여기에 와서 앉아 있고, 텅 비어 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비어있음’이라는 뜻은 아니다. 비어있음과 차 있음은 둘이 아니다. 비어있음과 차있음 사이에 구

분선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무언가 있는 것은 또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모른다. 나는 할 말을 준비해서 오지 않는다. 당신이 내게서 무엇을 이끌어낼지는 당신의 몫이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것은 당신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내게서 답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답과 무관하다. 이것은 답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전혀 어떤 답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반사 반응과 같다. 당신이 질문을 던지면, 무언가가 나온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것은 생각의 산물이 아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나오고 있다. 당신이 공을 던지고 나서, 공이 다시 튕겨 나오면 그것을 두고 당신은 답이라고 한다. 내가 하는 일은 질문을 재구성해서 당신에게 다시 던지는 것뿐이다.

Q : 질문이 답을 가져오나요?

UG : 답은 없다. 그래서 질문도 남아있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 그런 질문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질문도 없다.

Q : 당신의 답은 단지 질문에 대한 반사인가요?

UG : 그것은 '나의' 답이 아니다. 질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은 마치 정말인 양 내 질문이 된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질문은 스스로를 태

위버리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에너지다. 당신은 아홉시간이고 열 시간이고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은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에너지를 보탠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에너지의 표현이다.

Q : 양자역학에 대해서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UG : 그 분야는 내가 모른다. 그것이 나의 답이다. 그래서 질문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고 만다.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화살처럼 곧바로 나온다. 이 안에 있는 것이 그저 나온다. 그러나 “신은 존재하는가?”, “삶은 단지 우연인가?” “완전한 정의가 세상을 지배하는가?”과 같은 질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질문이 저절로 자멸한다.

Q : 나는 누구입니까?

UG : (웃는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주 잘 안다.

Q : 무슨 의미입니까?

UG : “나는 누구인가?”가 정말 당신 자신의 질문인가? 전혀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디선가 주워들은 것이다. 문제는 질문한 사람이 질문이 아니다. 이 질문이 없었다면 당신은 아마 다른 질문을 주워왔을 것이다. 그리고 40년 후에도 여전히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결코 하지 않는다. 분명히 당신은 삶에서 아무 의미를 못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살아있지 않다. 당신은 죽어있다. 내가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이야기해주면 그것이 당신을 어딘가로 인도해줄 것 같은가?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는가?

Q : 질문자는 존재합니까?

UG : 질문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질문 밖에 없다. 모든 질문이 그러하다. 그것들은 기억된 질문의 기계적인 반복일 뿐이다. 당신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묻든,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든 “사후 세계가 있는가?”라고 하든, 이 모든 질문은 다 기억에서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질문이 있는지를 묻은 것이다.

Q : 진정으로 살펴본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UG : 당신이 질문과 질문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과 질문자는 같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매우 간단해진다. 질문이 사라지면 질문자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 그러나 질문자가 사라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도 남아있다. 질문자가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다. 그 질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는 영원히 남아있다. 질문자의 관심이 계속되고, 답은 얻지 못한다.

Q : 그러나 답을 얻으려 하는 주의는 여전히 있습니다.

UG : 그 주의가 질문자다. 그 기다림이 질문자이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이 질문자이다. 다른 게 아니다. 보다시피 질문자는 자신을 다른 까다로운 상황으로 변형시킨다. 질문자는 먼저 그가 주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답을 원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암시를 원하지 않는다. 그가 이 답으로 무엇을 할까? 그는 주의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침묵)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Who am I”라는 질문에 답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으로는 알 길이 없다.

‘나’와 ‘누구^{who}’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동사다. 그래서 ‘나’와 ‘누구^{who}’가 마치 서로 다른 두 가지인양 ‘인가?^{am}’라는 동사가 이 둘을 연결한다. ‘이다^{am}’라는 동사는 이어주는 것이다. 동사가 없다면 (동사가 사라질 수 있다면(웃음)) ‘나’와 ‘누구’를 연결할 필요도 없다. 이 둘은 같기 때문이다.

Q : 동사가 사라진다면?

UG : 질문도 사라진다. 동사 없이는 질문도 있을 수 없다. “나 누구 Who I”,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인가?^{am}”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분 짓는 움직임이 생겨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질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질문이란 것은 그것에 답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질문은 당신이 그 질문에 ‘모호’하게나마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나와는 다른 뭔가가 있음에 틀림없어”라고 말이다.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Q :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UG : 죽음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다. 당신 같은 젊은 사람에게는 더 그렇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가? 왜 죽음에 관심이 있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시간이 없다. 살아있지 않는 사람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다. 당신은 살아있지 않다. 먼저 당신의 삶을 살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해두자, 나는 그런 종류의 철학에 관심 없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 같은 것은 없다. 당신은 무엇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 몸은 구성 요소로 해체되니, 없어지는 것이 없다. 화장한다고 해도 재는 땅을 거름지게 하고 발아를 돕는다. 땅에 묻으면 벌레들이 그것을 먹고 산다. 강물에 던져 버리면 물고기들의 먹이가 된다. 삶의 한 형태가 다른 삶의 형태로 나아가고, 그래서 삶에 연속성을 준다. 그래서 삶은 불멸이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죽음’은 두려움이고,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나’,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 ‘나’가 끝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나’는 이 몸도 다른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죽으리란 것을 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다) 이 몸이 없어져도 ‘나’가 계속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 ‘나’가 사후의 삶을 투사한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해진다. 두려움이 그것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죽음의 문제 또한 사라진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죽음은 경험할 수 없다. 목샤moksha나 해탈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 모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죽기 직전에 목샤를 얻을 것이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웃음)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다는 것을 당신도 알 것이다. 몸은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되돌릴 길도 없다. 그런 죽음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지

금이든 소위 ‘생’의 마지막에서든. 지식, 지식의 연속체가 끝나지 않는 한, 죽음은 일어날 수 없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지식의 일부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나 죽음은 신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지식의 끝이 죽음이다. 당신은 죽음 후에 무엇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이 있나? 그 실체는 어디에 있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영혼도 없다. 죽음 후에 대한 이 질문만 있다. 답, 내 답이 아니라 당신의 답을 찾으려면 지금 질문이 죽어야 한다. 질문은 죽음 후에도 무언가가 계속된다는 가정과 믿음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Mystique of Enlightenmen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우팔루리 고팔라 크리슈나무르티** Uppaluri Gopala Krishnamurti (1918.07.09~2007.03.22) | 깨달음에 의문을 제기한 인도 사상가. 비록 개인의 일상에서 ‘사고(思考)’가 필요한 하지만 궁극적 실체나 진리라는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고체계와 지식을 부정한 것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U.G.는 종종 그의 존재 상태를 ‘자연스런 상태’라고 부른다. 만일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물론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는 동시대 인물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http://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소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